

FTA 활용 해외사례 발굴 및 관련 자료 수집

1. 출장자: 김수동(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 FTA 국내대책본부

- 정은보(지원대책단장)

- 이영훈(산업지원팀 과장) 외 2명

2. 출장지: 멕시코, 칠레 등/ 출장 세부일정 참고

3. 출장기간 : 2007년 10월 22일 - 10월 29일 (7박 8일)

4. 출장목적 :

-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 확산 추세에 발맞추어 현재 가장 활발하게 FTA를 체결하고 있는 칠레와 멕시코를 방문하여 FTA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함.

- FTA 활용 해외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관련 및 유사 업종의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독려하고 이들 업종이나 상품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해외 기업들의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나아가 정부 및 유관기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멕시코와 칠레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 전략과 현지화 성공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장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사례로 제공하고 컨설팅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방문국 현황

칠 레

1. 일반 현황

수도	산티아고	1인당 GDP	8,641달러('06년)
인구	1,510만명 ('06년)	수출	559억불('06년)
면적	757,000km ² (한반도 면적의 3.4배)	수입	348억불('06년)
언어	스페인어	화폐단위	페소(Chilean Peso)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경제성장률	4.4%('06년)

2. 경제 현황

□ 산업구조

- 1차 생산품 수출과 공산품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구조는 구리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음
 - 세계 구리 생산 1위의 국가로 광업의 비중(7.9%)이 높음
- 제조업의 비중이 17%(한국 28%)에 불과하고 원자재 및 1차 생산물의 가공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반은 취약함

칠레의 산업구조 (2006)

분 야	비 중 (%)
광 업	17.2
제 조업	15.0
금융업	12.7
상업·호텔·식당	11.2
개인서비스업	10.2
건 설	8.1
운송·통신	7.6
부동산	4.9
농림업	3.6
기 타	9.5

자료: 칠레 중앙은행

□ 대한민국과 교역 현황

최근 10년간 한-칠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년도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수지
97	655(2.3)	1,162(5.4)	-507
98	567(-13.5)	706(-39.2)	-139
99	455(-19.7)	815(15.4)	-360
00	593(30.2)	902(10.6)	-309
01	573(-3.4)	696(-22.8)	-124
02	454(-20.7)	754(8.3)	-300
03	517(13.9)	1,058(40.3)	-541
04	708(36.9)	1,934(82.8)	-1,225
05	1,151(62.5)	2,279(17.9)	-1,128
06	1,566(36.1)	3,813(67.3)	-2,247
07.1-9	2,245(96.0)	3,178(13.2)	-933

자료: 무역협회

2006년 한-칠레 수출입 품목

(단위: 천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명	금 액	비 중	품 목 명	금 액	비 중
석유제품	494,124	31.6	동제품	1,620,847	42.5
자동차	481,892	30.8	동광	1,369,192	35.9
합성수지	137,666	8.8	기타석유화학제품	195,120	5.1
무선통신기기	99,309	6.3	제지원료	129,184	3.4
영상기기	36,065	2.3	육류	83,985	2.2
철강판	33,732	2.2	기타금속광물	82,182	2.2
자동차부품	31,314	2.0	아연광	73,722	1.9
건설광산기계	30,007	1.9	철광	46,603	1.2
고무제품	22,944	1.5	곡실류	42,616	1.1
철강관및 철강선	15,845	1.0	수산가공품	40,332	1.1
총 계	1,566,131	100.0	총 계	3,812,945	100.0

자료: 무역협회

□ 한-칠레 FTA

-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99.12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02.10월에 타결되어 '03.2월에 공식 서명 되었으며 '04.4.1일부터 발효됨
- (상품양허) 품목수 기준 각각 94.5%(우리나라), 96.5%(칠레)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에 합의
 - 또한 투자, 서비스, 기술 장벽,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협정 발효 이후 수출증가율은 발효 전 1년의 9.6%에서 발효 1년차 58.2%, 2년차 46.6%, 3년차 50.1%로 수출증가세 지속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 %)

	발효전 1년 (‘03.4-’04.3)	증가율 <증감액>	발효후 1년 (‘04.3-’05.3)	증가율 <증감액>	발효후 2년 (‘05.4-’06.3)	증가율 <증감액>	발효후 3년 (‘06.4-’07.3)	증가율 <증감액>
수출	524	9.6	830	58.2	1,216	46.6	1,825	50.1
수입	1,328	63.8	1,925	44.9	2,552	32.6	4,097	60.6
수지	-804	<-471>	-1,095	<-292>	-1,335	<-240>	-2,272	<-937>

자료: 무역협회

멕시코

1. 일반 현황

수도	멕시코시티	1인당 GDP	7,925불(‘06년)
인구	107.4백만명(‘06년)	수출	2,502억불(‘06년)
면적	1,958,201km ² (한반도 면적의 9배)	수입	2,561억불(‘06년)
언어	스페인어	화폐단위	페소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경제성장률	4.8%(‘06년)

2. 경제 현황

대한민국과 교역 현황

최근 10년간 한-멕시코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년도	수출 (증감율)	수입 (증감율)	수지
97	1,471 (23.5)	344 (-15.7)	1,127
98	1,405 (-4.5)	191 (-44.6)	1,214
99	2,017 (43.6)	292 (53.0)	1,725
00	2,391 (18.6)	378 (29.6)	2,013
01	2,149 (-10.1)	267 (-29.4)	1,882
02	2,231 (3.8)	295 (10.8)	1,935
03	2,455 (10.1)	334 (13.0)	2,121
04	2,994 (22.0)	411 (23.2)	2,583
05	3,789 (26.6)	460 (11.8)	3,329
06	6,285 (65.9)	798 (73.5)	5,487
07.1-9	5,241 (12.8)	735 (21.3)	4,507

자료: 무역협회

2006년 한-멕시코 수출입 품목

(단위: 천달러, %)

수 출			수 입		
품 목 명	금 액	비 중	품 목 명	금 액	비 중
영상기기	1,526,773	24.3	동제 품	180,856	2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96,904	17.5	아연광	91,159	11.4
무선통신기기	816,150	13.0	계측제어분석기	61,098	7.7
자동차	343,285	5.5	유선통신기기	55,044	6.9
컴퓨터	277,244	4.4	무선통신기기	49,850	6.2
철강판	268,943	4.3	소금	34,742	4.4
합성수지	250,548	4.0	육류	26,836	3.4
유리제품	143,934	2.3	기타금속광물	25,435	3.2
자동차부품	99,715	1.6	컴퓨터	25,279	3.2
전자관	99,143	1.6	반도체	23,762	3.0
총 계	6,284,571	100.0	총 계	797,651	100.0

자료: 무역협회

□ 한-멕시코 FTA

- '00.5월 제5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민간협력 강화, 투자 보장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멕시코 FTA 논의 시작
- '04.10월부터 '05.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문가그룹 회의가 열렸고 현재 제3차 협상('06.6.14-16일)까지 개최 됨

6. 출장 세부일정 :(시차) 한국과 LA : -16, 멕시코시티 : -14, 산
티아고 : -12

일차	월일	시행지역	교통편	현지시각	내 용	식사
1	10/22 (월)	인 천 로스앤젤레스	KE017 전용차량 KE7961	12:30 15:00 10:00 15:25	인천 국제공항 3층 G카운터 19번 앞 집결 인천 출발 (비행시간: 11시간) 로스앤젤레스 도착 국제선 연결편 이동 로스앤젤레스 출발(비행시간: 11시간 5분)	
2	10/23 (화)	산티아고	전용차량	06:30 16:30	칠레 산티아고 도착 문화체험 compañia Frutera del Norte (과일수출기업) 호텔숙박(Sheraton Santiago) - 주소: Ave Santa Maria 1742, Santiago, Chile - 연락처: +56-2-233-5000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한 식
3	10/24 (수)	산티아고	전용차량	10:00 11:00 15:30 17:00	칠레 통상교섭국 북미국 칠레 통상교섭국 EU·아중동국 칠레 카톨릭 대학 Asexma Chile (서비스·제조업 수출업체 조합) 호텔숙박(Sheraton Santiago)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4	10/25 (목)	산티아고 멕시코시티	전용차량 LA 622 전용차량	11:00 15:00 21:45	salmones Pacific Star (연어양식·가공기업) 산티아고 출발(비행시간: 8시간 45분) 멕시코시티 도착 호텔숙박(Galeria Plaza Mexico City) - 주소: Hamburgo 195 col.Juárez, Mexico City 06600, Mexico - 연락처: +52-55-5230-1717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5	10/26 (금)	멕시코시티	전용차량	10:00 13:00 16:30	CIDE 대학 Inderstrias Peñoles 금호타이어 멕시코지사 호텔숙박(Galeria Plaza Mexico City)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6	10/27 (토)	멕시코시티	전용차량	14:00	LG전자 멕시코지사(LGEMS) 문화체험 호텔숙박(Galeria Plaza Mexico City)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7	10/28 (일)	멕시코시티 샌프란시스코	전용차량 UA 820 KE 024	06:00 09:55 12:50	호텔 출발 멕시코시티 출발 샌프란시스코 도착 샌프란시스코 출발	
8	10/29 (월)	인 천		17:50	인천도착	

7. 출장 결과보고 - 방문 기관별

1) Compañia Frutera del Norte(과일수출기업)

(면담자: Patricia Matamoros[금융관리이사], Janeti Cdvrtnik[국제무역담당])

가. 기업개요

□ 생산자들이 합자한 회사로서, 50년 이상 포도와 핵과류(매실, 복숭아 등)를 수출하는 기업

○ 1999년~2000년 150만 박스 수출을 시작으로, 최근 그 수출량은 250만 박스로 확대

* 주요 수출지역 :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 지역

* 취급품목 : 포도, 아보카도, 복숭아, 과일원액, cereza, 자두

< 주요 수출국별 농산물 수출 현황 >

수출국		수출 농산물
미주	미국	◇포도, 살구, 아보카도, 체리
	멕시코	◇포도, 자두, 체리, 과일원액, 복숭아
유럽	영국	◇포도
	스페인	◇포도
	네덜란드	◇포도, 자두, 아보카도
동아시아	한국	◇포도
	일본	◇포도
	중국	◇포도, 체리, 과일원액
	홍콩	◇포도, 체리, 과일원액
	싱가폴	◇포도
	인도네시아	◇포도
	필리핀	◇포도

- 회사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회사지주의 생산기반 확대에 기인함
 - 또한, 새로운 품종개발로 인한 판로 확대와 고품질을 꾸준히 유지하여 소비처의 신뢰를 획득한 결과
- 주요 포도 생산지는 ‘Limarí 와 Elqui Valleys’(Coquimbo 지역 위치)
 - * Coquimbo(IV지역) :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5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와인포도 농장이 2,192ha(국가 전체의 2%에 해당)에 달함

나. 질의 응답

Q1. 귀사가 취급하는 농산물 규모 중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그리고 시장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A. 우리 회사는 전체 칠레 농산물 생산량의 3% 정도를 취급하며, 수출만으로는 21위에 해당하는 회사임. 한국으로는 레드글로브가 2만 5천 박스(전체 수출물량 230만 박스) 수출되고 있음.

Q2. FTA 전후 과일 수출에 따른 매출변화는 어떻게 되며, 회사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시장은 어디인가?

A. 미국과의 FTA를 볼 때는 큰 변화가 없다. 이미 칠레 과일은 미국시장에서 선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

문이다. 한국과는 FTA 전에는 키위만 수출했었는데 FTA 후 포도 수출이 20% 증가하였고 그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Q3. 한국으로의 시장확대에 따른 장애요인은?

A. 한국은 짙은 색의 포도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레드글로브는 색깔이 열어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쉽지 않다.

Q4.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귀사가 취하고 있는 노력은?

A. 포도는 농산물이므로 한국인이 원하는 포도색깔에 맞춰 색깔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회사는 포도의 색깔에 예민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소비자에게로 수요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Q5.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시장진출 전략에 차이가 있나?

A.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은 관세로 인한 가격차이 뿐 다른건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회사는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FTA체결국에 수출하고 있다.

Q6. 특별히 활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정책이 있는가?

A. 지원받고 있는 정부정책은 없으며, 우리회사는 세계 수출업체협회에 가입하고 있어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Q7. 칠레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A. 칠레의 모든 과일은 수출 전에 세관에서 검사를 한다. 이때 특별한 지불금이 있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칠레 대사관에서 칠레 과일 홍보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Q8. 칠레는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반대가 없었나?

A. 우리도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FTA에 따른 소비자 후생효과를 설명하면서 국민을 이해시켰고, 칠레 농업인가 미국 캘리포니아 농업인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면서 반대를 불식시킴

2) 칠레 통상교섭국 북미국 및 EU·아중동국

(면담자: Paulina Nasal[북미국장], Augusto Castillo[보좌관],
Luciano Cuervo Moraga[경제보좌역])

가. 개요

1 Direcon의 통상정책

- 외교부 국제통상교섭국(Direcon)의 통상정책 목표는
 -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와 국제적인 규제 강화를 통한 자유무역의 실현, 엄격하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에 부합하는 무역정책
 - 기술적 변화·확산을 촉진시키고 혁신과 창의성을 고무시키는 무역자유화,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에 대한 국민의 공감확산 등임

2 칠레 FTA관련 보고서

- 『EU-멕시코, EU-칠레 FTA 체결 전후의 양측간 무역·투자 흐름』 보고서 (2007.10월 KOTRA 구주지역본부)
 - 2003년 2월 EU-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의 EU에

대한 수출*은 증가(점유율 0.51%(02년)→0.89%(04년))한 반면 수입(0.35%)은 별다른 변화 없음

* 광물과 음료가 주를 이루며 이를 제외한 공산품 수출 증가폭은 크지 않음(0.29%내외)

- EU 회원국 중 주요 칠레 투자국은 스페인과 영국임. 그러나 해외투자 및 외국인 투자 모두 FTA 전후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어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움

□ 『한-칠레 FTA 발효 3년 수출입 동향분석』 보고서 (2007.3월 한국무역협회)

- 2004년 4월 발효되어 10년 내에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우리나라)와 96.5%(칠레)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이후 3년간 수출* 증가세 지속,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다 3년차에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증가

* 발효 전 1년의 9.6%에서 발효 1년차 58.2%, 2년차 46.6%, 3년차 44.3%

** 발효 전 1년의 63.8%에서 발효 1년차 44.9%, 2년차 32.6%, 3년차 66.7%

- 칠레의 수입시장에서 관세 즉시철폐 품목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칼라 TV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증가

* 2003년 3.0%에서 2006년 4.7%로 증가, 점유율 순위도 8위에서 5위로 상승

- 발효 3년간 누적된 對칠레 수입증가액의 88.2%가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임

□ 『칠레·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2004.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년 1월 발효된 칠레-미국 FTA는 미주지역에서 발효된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협정임
- 미국시장의 진출여건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진출 확대 기대

나. 질의 응답

Q1. 칠레는 56개국과 17건의 FTA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FTA를 적극 추진한 배경이 있나? 또한 그 효과는 무엇인가?

A. 칠레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수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제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제조업부문

육성을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이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정치와 치안문제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 중의 하나임.

Q2. 의회승인을 위해 로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사례를 말해준다면 ?

A. 미-칠레 FTA 의회승인을 위해 칠레정부는 미국의회를 상대로 상당한 로비를 펼친 적이 있다. 칠레뿐만 아니라 미국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반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찬성위원을 지원했다.

Q3. 한국의 경우 규제철폐나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많은데 칠레의 경우는 어떤가?

A. 칠레는 기업관련 법률 제·개정시 반드시 업체들을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Q4. FTA의 결과로 인한 성공 및 피해사례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가, 있다면 자료협조 요청에 응하겠는가?

A. DIRECON이 아닌 PROCHILE(칠레 상공회의소 성격)에서 그런 자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필요하다면 그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구해줄 수 있다.

Q5. FTA의 결과로 제도개선이나 법률 제·개정을 한 사

례가 있는가 ?

A. NAFTA의 결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다.

Q6.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은 무엇인가?

A.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 공략이 어려운데 현재 많은 국가에 정부산하 조직이 나가서 관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원책으로는 사업촉진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당 업종의 협회 설립을 지원하여 이들로 하여금 업종별 요구사항, 애로점, 지원방안 등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다.

3) 칠레 카톨릭 대학

※ D교수는 정부의 FTA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음.(이유: 칠레는 본래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성함. 90's부터 칠레가 FTA를 시작했으나 FTA비체결국과의 무역증가율이 체결국보다 높았음.)

그러나 FTA가 국가간 관계 증진과 학생들간 왕래기회의 확대로 폭 넓은 지식습득의 기회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봄.

FTA는 양국간 수출입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춘다든지 투자와 기술협력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것임. 그러나 우리는 FTA를 볼 때 상품교역에만 관

심두는 경향이 있다.

칠레의 민간기업은 상당히 역동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관여와 간섭은 거의 없다. FTA는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경제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함.

D교수는 칠레의 가장 효과적인 FTA로 한·칠레 FTA를 꼽음.

Q1. 한·칠레 FTA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A. 아직 미약하나, 양국간 수출입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양국간 보완적인 경제관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Q2. 미국과의 FTA가 칠레 국민에게 미친 영향은?

A. FTA로 양극화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메르코수르와의 FTA는 교역상품(우유, 옥수수, 곡류, 사탕수수 등)의 한계로 인해 피해가 있었다.

Q3. 칠레의 FTA 중 투자와 기술협력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A. 칠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좋은 나라임

4) Asexma Chile(서비스·제조업 수출업체 조합)

(면담자: Luis Palma[국제관계국장])

가. 개요

1 칠레 서비스업 및 제조업 현황

- 국내총생산(GDP) 중 농업·수산업·광업(1차 산업)과 서비스업(3차 산업)으로 양극화된 산업구조를 보임
 - 제조업의 비중은 17%(한국 28%)에 불과하고, 이 중 농수산가공업이 대부분을 차지
 - 서비스업은 금융과 유통, 통신에 강세를 보임

칠레의 산업구조 (2006)

(단위 : %)

분 야	비 중
광 업	17.2
제 조업	15.0
금융업	12.7
상업·호텔·식당	11.2
개인서비스업	10.2
건 설	8.1
운송·통신	7.6
부동산	4.9
농림업	3.6
기 타	9.5

자료: 칠레 중앙은행

나.질의 응답

Q1. 귀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A. 우리 조합은 포장·의약품·광산 및 건축자재·음식물 가공 등 4개분야의 산업에 속해 있는 400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사의 수출을 돕기 위해 수출국의 세금제도·원산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Q2.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A. 수출을 원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사에게 수출컨설팅이나 수출지역의 법·관세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시장조사를 하며 바이어와의 미팅 등을 주선

Q3. 회원사 중 FTA를 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A. 현재 중국과의 FTA로 수출이 전과 비교해 140% 증가했다. 차 티백을 만드는 A사의 경우, 일본항공사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 가구제조업을 하는 B사는 미국과의 FTA를 활용해 미국 조달시장에 진출하게 되

었다. 칠레회사는 외국 상품시장 기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국제적 상품을 많이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며, 칠레가 현재 59개국과 19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어 외국시장에서 칠레상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 칠레에 투자해 칠레상품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

Q4. 회원사는 FTA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A. 회원들은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 터키·호주와 협정전 미팅을 진행중이고 호주와의 빠른 FTA체결을 희망함. 또한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회원의 의견은 정부에 빠르게 전달하고 있고, 정부에서 나오는 정보는 회원에게 전달하여 협상에서 정부와 회원사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Q5.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A. 구두제조업을 하는 A사는 중국에 진출하여 칠레로 역수출하고 있고 잠재적인 중국시장도 의미있게 보고 있음. 현재 인도와의 FTA를 진행중인데 잠재적 시

장개척 위해 인도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5) Salmenes Pacific Star(연어양식·가공기업)

- ※ FTA 이후 칠레에 외국 투자자금의 유입이 활발함. 자국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출을 지향하고 있음

(면담자: Carlos Baeze[무역부 이사])

가. 회사 개요

- 1985년 설립(700여명 고용)된 초창기 연어양식기업, Quellon(X 지역)에 위치
 - 9개의 연어 양식장(4만톤)과 3개의 부화장(1,200만톤 수정란) 보유
- 최근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시장 확대(주요시장은 일본, 미국, 유럽)

※ 칠레의 수산업

□ 칠레의 수산업 현황

- 북부는 주로 부어(浮魚)어장, 남부는 저어(底魚)어장이 형성되어 북중부에는 어육공장이 남부에는 가공공장이 발달되어 있음
 - 어장은 연안으로부터 20~30마일 내의 수역에 위치하

고 있으며, 어종이 다양하고 어획량도 풍부함

* 부어 : 해표 가까이 유영하는 어류(정어리, 고등어, 가다랭이 등)

* 저어 : 가자미, 넙치, 아귀

○ 세계 7위의 수산물 생산국이며, 세계 9위의 양식업 생산국

- 양식업 생산량 중 연어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수출지향으로 성장,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76%를 수출

- 수산물 수출액 : 5,000만 달러(1975년) → 19억 5,900만 달러(2002년)

* 한국의 대칠레 수입 수산물 품목 : 주로 양식사료[어분(67%), 정어리(10%)]

○ 칠레 정부의 수산정책 : 어종에 따른 수산물 쿼터 제도

-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오염과 엘니뇨 현상 등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에 대해 어획량을 제한

- 쿼터는 어종의 생산량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기업과 영세어업에 각기 다른 어획량을 배분

- 해당년도의 어획량을 초과한 어선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초과된 수치의 3배를 제외한 어획량을 배당받게 됨

- 이러한 규제정책은 위성을 이용(각 배에 위성장치를 달고,

의무등록함)

□ 세계 연어시장 동향

- 세계 연어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55만톤(1980년) → 240만톤(2004년)]
 - 북미지역(자연산) : 30만톤(1980년) → 50만톤(1995년) → 40만톤(2004년)
 - 일본과 러시아(자연산) : 25만톤(1980년) → 50만톤(1997년 이후)
- 1996년부터 일본과 러시아의 자연산 연어 생산량이 북미지역의 연어 생산량을 초과
 - 2004년 북미지역 자연산 연어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6 수준

□ 세계 양식 연어 생산량 상황

- 세계 양식 연어 생산량도 급증 추세[1만톤(1980년) → 150만톤(2004년)]
 - 양식 연어 생산량이 세계 전체 연어 생산량의 60% 이상 차지
- 남미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연어 양식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
 - 이전에는 새우가 주된 양식대상종이었으나, 질병발생 등으로 새우 양식지가 연어양식으로 대부분 대체

< 연어 어종별 생산량(2000~2004년) >

(단위: 천톤)

	어종	북미 자연산	일본·러시아 자연산	양식	합계
생산량 (전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Atlantic			1,077(100%)	1,077
	Chinook	12(36%)	1(2%)	20(62%)	32
	Sockeye	95(80%)	24(20%)		119
	Coho	19(14%)	2(2%)	116(84%)	137
	Pink	167(50%)	169(50%)		335
	Chum	81(24%)	258(76%)		339
	Trout			188(100%)	188
	합계	374(17%)	454(20%)	1,401(63%)	2,229

□ 연어 소비시장

○ 연어 소비시장은 크게 유럽 신선·냉동시장, 일본 신선·냉동시장, 미국 신선·냉동시장, 연어통조림 시장, 기타 시장으로 구분

- 연어 소비량 중 양식산 연어의 비중이 50% 이상

< 전 세계 연평균 연어 생산량과 소비량 >

(단위: 천톤,%)

연어 종류	생산국가	전체 생산량	소비량				
			미국시장	유럽시장	일본시장	통조림시장	기타
북미 자연산	미국	346	38	18	32	86	49
	캐나다	28	28	9	0	11	0
	합계	374	47	18	37	97	49
일본·러시아 자연산	일본	249	0	0	161	5	38
	러시아	205	0	0	27	11	99
	합계	454	0	0	188	15	136
양식	노르웨이	483	7	249	34	1	86
	칠레	370	94	18	75	2	28
	영국	143	8	105	1	0	0
	캐나다	104	61	0	0	0	0
	미국	17	10	0	0	0	6
	일본	10	0	0	11	0	0
	기타	86	3	65	4	0	12
	합계	1,213	184	437	126	3	133

○ 칠레산 양식 연어는 전 세계 양식 연어 생산량의 30% 이상 차지

- 양식 연어의 가장 큰 소비시장은 유럽시장으로 전세계 연어 소비량의 30% 이상 차지

나. 질의 응답

Q1. FTA체결 후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변화는?

- A. 가공상품만 수출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와 비교해 품질은 높았으나, 가격경쟁력이 낮았으나 FTA 체결후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경쟁이 가속화되어 우리회사는 신제품 개발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Q2. FT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 A. 양식장 조성에 소요되는 장비나 자재들을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FTA를 적기에 활용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중요요소

Q3.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생각은?

- A. 칠레정부는 규제정책을 민간기업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으로 수립한다. 일본과의 FTA의 경우 일본이 주력시장인 민간기업을 협상에 참여시켜

양허안을 조정하고 양국간 규제정책도 조정한다.

6) CIDE 대학

※ 면담자: Jorge A. Schiavon 교수, 국제무역학부 학과장

Q1. NAFTA체결 후 멕시코 경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A. 1992년 NAFTA 체결 후 멕시코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대미 교역량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는 NAFTA 전과 비교해서 6-7배 증가하였으며 (1995년 대미흑자 71억달러, 2004년 흑자규모 426억달러) 경제성장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 폐소화위기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신속한 지원으로 7개월만에 회복했다. 다만,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서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멕시코 농업부문의 구조적 문제 (90%이상이 소작농이)에 기인한 것으로 NAFTA와는 관련성이 희박하다.

Q2. NAFTA 체결에 반대하는 부문, 특히 농업과 노동자 계층을 어떻게 설득하였나? ?

A. 멕시코의 정치구조를 살펴보면, 대통령 부속기구로 농민, 노동자 그리고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정부는 이 조직에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고 반대세력과의 직접협상보다는 간접참여의 형태를 유지했다.

Q3. 정부의 대언론 정책을 한국과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A. NAFTA나 다른 FTA에 부정적인 언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이 나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 통계, 논리 등을 국민들은 믿지 않으려 한다.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계, 대학,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한 객관성이 검증된 단체나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외국회사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의 부정적 측면을 말할 때, 공공부분에서의 국민 부담증가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A. 사실 많은 멕시코 기업이 현재 외국인 소유입니다. 공공부문도 일부는 그렇구요. 하지만 에너지 관련 회사들(전기, 가스, 석유 등)은 정부의 의지와 국민

들의 강력한 지지로 여전히 정부에서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문에서 요금인상 등의 여파로 국민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투자의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Q5. 금융부문에서의 외국인 소유비중은 어떻습니까?

A. 외국인 소유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바로 금융업 종입니다. 아마 8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미국계, 스페인계, 캐나다계 외국인 소유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금융부문이 외국계 특히, 미국계 금융기관에 종속되다보니 미국발 금융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이죠. 최근의 좋은 예가 바로 2000년 초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동반 경기침체를 들 수 있죠.

7) Inderstrias Penoles (광물채광 및 수출기업)

※ 면담자: Mr. Luis E. Ibarra, 산업금속판매담당

가. 기업현황

□ 회사 개요

- 1887년 설립, 8,804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광물수출기업(수출비중이 74.8%)
 - 주요 수출국은 미국·유럽·일본·남미국가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398억 6천 달러(2006)임.
- 주요 사업 : 광산업, 금속 및 비철금속(금, 은, 납, 아연, 주석 등) 용해 및 정제, 화학제품 제조
- 생산품 : 정제된 금·은·아연·납·주석제품, 황산나트륨, 산화마그네슘 등

□ 사업별 비중

< 광산업 >

항 목	비중/광산업 매출(%)
아연	40.7
은	34.3
금	14.5
구리	5.6
납	4.9

< 금속 용해 및 정제 >

항 목	비중/매출(%)
은	36
금	30.2
아연	24.2
납	6.2
기타	3.4

< 화학 >

항 목	비중/매출(%)
황산 나트륨	43.9
산화 마그네슘	27.1
황산 암모니아	20.1
황산 마그네슘	2.9
기타	6.0

□ 총매출 구성(2006, 생산물 기준)

항 목	비중/총매출액(%)
은	32.2
금	26.9
아연	21.4
정제	6.6
납	5.5
황산 나트륨	1.5
구리	1.3
산화 마그네슘	0.8
기타	3.8

□ 총매출 구성(2006, 수요처 기준)

구 분	비중/총매출액(%)	
International	74.8	
	미국	81.6
	유럽(7개국)	6.5
	일본	3.6
	남미(7개국)	1.4
	기타(16개국)	6.9
멕시코	25.2	

나. 질의 응답

Q1. FTA 활용을 통해 수혜를 보는 주요 생산품 종류는?

A. 회사의 4개 사업영역은 광산개발, 채광, 금속제품, 화학제품이며, 아연, 금, 은, 구리, 납 등을 이용한 용해·정제품, 화학제품으로는 황산나트륨, 산화마그네슘, 황산암모늄 등을 수출하고 있음.

Q2.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한 교역비중? 또는 장래 교역증가를 예상하는 국가는?

A. 현재 미국이 가장 큰 수출시장(2006년 전체수출의 81.6%)이며 성장속도 면에서는 유럽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시장의 2006년 매출은 9천3백만 달러였으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은 6억5천8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유럽과의 FTA후 단계

적인 관세인하로 최근 무관세가 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이기도 하다.

Q3. 주요 수출품의 관세율 수준 및 가격경쟁력 향상 정도?

A. 평균관세율은 약 7% 정도이며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는 이미 무관세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워낙 싸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충성스런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품질면에서 다른 나라 제품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한다.

Q4. FTA로 인한 매출, 수출, 이윤, 시장 점유율 등의 변화를 말한다면?

A. '05년 대비 '06에 매출은 68.3%, 총이윤은 67.5%, 영업이익은 127.9%, 순이익은 133.5%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이보다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천연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면이 크다. 그리고 세계 많은 국가들과의 FTA로 인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Q5. 원자재 또는 원료 조달시 FTA 활용 여부?

A. 현재 전체 원료의 15%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를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주로 주변 국가들인데 대부분은 이미 무관세이다.

Q6.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고충? (예: 원산지 기준, 통관절차, 비용부담 등)

A.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시장개척 초기 단계에서 수출입 또는 통관과정의 까다로운 서류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8) LG전자 멕시코지사

면담자: 김진상 부장, 이성욱 단말기 담당, 심현목 재무담당과장, 조현진 TV 담당,

가. 기업현황

기업개요

- 1988년 멕시코 진출, 멕시코시티에 판매법인을 운영 중
 - 생산법인 : 멕시칼리(TV, 모니터, 휴대전화), 레이노사(TV, PDP TV), 몬테레이(냉장고)
- 3개 공장과 판매법인에 7천여명의 종업원이 근무 중

- 현재 멕시코 시장에서 9개 부문(PDP TV, LCD TV, DVD 레코더, LCD 모니터, 홈시어터, 광스토리지, CDMA 휴대폰, 가정용 에어컨, 전자레인지)에서 시장점유율 1위
 - 생산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미국(60%), 멕시코 내수(30%), 중남미(10%)로 보내짐
- 멕시코내 3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의 매출은 총 31억 달러
 - 이 중 판매법인의 매출은 2006년 8억 6000만 달러임

□ 주요 생산공장 현황

- TV 공장 : 레이노사(수출자유구역)에 위치, 중남미 TV시장의 40%이상 차지
- 냉장고 공장 : 몬테레이에 위치, 멕시코 내수시장의 20% 해당
- 휴대폰 공장 : 멕시코칼리에 위치, GSM(유럽식 이동통신) 폰 시장 점유율 10%

* 멕시코 통신시장 : GSM(95%), CDMA(5%)

나. 질의 응답

Q1. NAFTA 및 남미 시장에서의 사업현황은?

A. 3개 생산법인과 1개 판매법인을 운영중이며 판매법인

을 1개 늘릴계획임. 에어컨, 냉장고, TV, 단말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태국, 한국 등에서 전체판매의 25%를 수입하고 있음. 2007년 매출은 10억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음. 가전제품의 관세율은 15-20% 정도임. 현지생산이 많아 FTA의 효과는 크지 않음. FTA로 인한 비관세장벽 완화나 부품조달의 용이는 생산법인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 현재 우려하는 것은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철폐할 경우 타격이 예상됨.

Q2. 중남미 시장에서 LG제품의 가격경쟁력 정도는?

A. 삼성과 LG를 100으로 보면 SONY가 105, Panasonic과 Sharp가 95-100 정도임. 제품의 사양이 많이 다르다는 점과 시장에서의 positioning의 문제가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함.

Q3.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고충? (예: 원산지 기준, 통관절차, 비용부담 등)

A. 개별 품목의 HS코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당국과의 입장차이가 존재함. 국가간 HS코드 적용기준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부 품목이 고관세 적용

품목으로 분류되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음. 끝.